



광양시 2019년 대학입시

명문대학 '340명' 합격

꾸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큰 성과 거둬

광양시는 2019년도 대학입시에서 지역 고등학교가 수도권 명문대학과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다수의 학생들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양체육고, 중마고, 광영고, 백운고, 광양고, 광양여고 등의 학생 총 303명이 '중장일보 선정 대학평가' 상위대학 20개교에 합격했으며, 카이스트, 포스텍, 경찰대, 교육대학 등 특수대학을 포함하면 총 340명이 합격했다는 것.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 9명, 성균관대 30명, 한경대(서울) 34명, 고려대(서울) 28명, 연세대(서울) 15명, 경희대 23명 등으로 인문계 총 졸업생 1,623명 중 21%

가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이번 성과는 광양시가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결과이다.

광양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67억 원을 투자해 연 평균 45억 원을 지원해왔고, 무상급식 및 학교체육 지원 등을 포함하면 총 1천 97억 원, 연 평균 110억 원 기량을 지원해온 셈이다.

시는 올해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67억 원, 기타 교육지원비 78억 원 등 총 145억 원을 투입해 38개 유치원과 50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특기 적성개발, 청의융합 인재육성 등 11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김성수 교육보육과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광양시는 인구유출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교육도시 구축에 시의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991년 (제) 백운장학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232 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1,523명에게 8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반려나무 숲 조성 · 반려나무 나눠주기 등 실시



순천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오는 18일 풍덕동 동천변 그린웨이(한신아파트 옆)에서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목과 결혼기념일 등에 심는 기념목 등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반려나무 갖기'를 통해 순천시 전

역을 생명숲으로 만들어 가자는 범 시민운동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구지킴이 어린이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식목일 행사와 함께 '반려나무 숲 조성', '반려나무 나눠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된다.

순천시에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해설사, 조경, 농·임업인 48명을 선정하고 향후 운동본부를 통해 나무심기 범 시민운동 전개, 시민 아이디어 공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시작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가 함께하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자는

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자는 순천 관내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로 기준중위소

득 200% (2인 가족 기준 5,813천 원) 이하인 가정에 해당된다.

신청은 22일까지로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넓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www.jepa.kr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 · 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형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법 안내

함평군보건소, 한의약 타이치 운동교실 운영

만성 관절염 환자들 대상 오는 7월까지



줄을 부드럽게 움직여 기(氣)의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운동으로, 관절염, 섬유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보건소는 이번 타이치 운동교실이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2회씩 총 20주에 걸쳐 운영되며 타이치 운동과 함께 명상호흡, 한의약 양생법, 만성퇴행성질환 관리교육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관절염과 같은 만성 퇴행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64,761㎡의 부지에 사업비 1,181억 원을 투자해 2,925세대 7,606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과 주민편의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3개의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3,900여 명이 거주하는 괘적한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보현 택지과장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발파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순항 중

토지보상완료···공사공정 목표대로 진행

광양시는 도시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 수용과 도시경쟁력 증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외우·광영·의암·성황·도이지구 등 3개의 택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 미동 일대 도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와우마을 일원 636,500㎡를 괘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2년 3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공정률 88%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71%정도다.

사업이 완료되면 2,404세대 6,49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이 구축돼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금단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황동, 도이동 일원에 2020년

구례군, 산수유꽃축제 대비 위생업주 교육



은 친절서비스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 친절서비스 및 식중독예방 뮤지컬 ▲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 식품접객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 노무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친절서비스와 식중독예방'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재미있고 유쾌한 뮤지컬 공연으로 참석자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 참석 업자들은 음식 문화개선 및 남도 좋은 식단 실천을 결의하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구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보성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공모선정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뮤지컬,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갤러쇼 등 5개 분야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군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나 많은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관람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